



불교문화클러스터 사하촌을 가다

15 능가산 내소사



내소사 전경.



꽃창살.



내소사 전나무 숲길.



내소사 고려 동종.

# 자연의 혜택 속 희망 가꾸는 절과 마을



돌담이 정겨운 석포리.

희망은 어려움 속에서 빛을 발한다. '여기에 오는 모든 이를 소생하게 하소서'라는 뜻을 담고 있는 내소사는 희망을 품은 사람들로 붐빈다. 백의관음보살좌상과 눈을 마주치며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소문으로 누구나 한 번쯤 들러보고 싶은 절집이다. 일주문을 통과하여 천왕문에 닿는 전나무 숲길은 속세의 번뇌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성불의 길로 통한다. 부처님은 절 안으로 들어가고 사람은 산문 밖에서 기다리도록 곁사람과 속사람을 분리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내소사는 백제 무왕 34년(633)에 해구두타(惠丘頭陀) 스님이 세운 절로 원래 이름은 소래사였다. 임진왜란 때 소실된 절을 청민 선사가 중창하여 인조 11년 아름다운 대웅보전을 증건하였다. 절집이 문맹되지 운동에 앞장서서 1932년 계명학원을 설립하고 아랫마을의 무취학 아동들과, 무학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주었다. 서래선림을 개원하여 호남불교의 선종을 일으키고, 해산우암 선사가 불래선원을 신축하여 현재의 대가람을 이루었다.

내소사는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은 소박함이 마음을 끄는 절집이다. 채색하지 않은 대웅보전과 꽃문양으로 장식된 문살은 가람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드러낸다. 꽃창살에 초화문을 정교하게 투각하여 불인 연꽃과 국화, 해바라기 꽃이 피어 마치 바람에 살랑대는 느낌이다. 그러나 범당 안에서 볼 때 화려하던 꽃 그림자가 밖에서 보면 정갈한 금강석 모양 창살일 뿐이다. 안의 세계가 모두 밖으로 나올 수 없는 모양이다. 절집을 짓던 목수가 문살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시행착오를 겪으며 마음을 깎아냈을 터. 불심으로 정성을 기울인 탓일까. 오래된 시간이 나뭇결에 그대로 살아있다. 꽃창살에는 부처님의 설법 중 환희의 꽃비가 내리는 광경과, 부처님 세계에 나고자 연화생을 염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한다.

변산의 절경과 어우러진 내소사는 아름다운 주변 환경 탓인지 예부터 많은 스님과 시인묵객들이 들러 시를 읊던 곳이었다. 경내 설선당 문짝에는 언제나 울림이 있는 시가 써여 있다. '당신의 부드러운 말 한마디 여유로운 발걸음 고요한 마음, 따뜻한 미소 당신은 이미 부처입니다.' 이 시를 읽고 마음 곱게 먹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일주문 앞 할머니 당산나무는 950살 나이를 허리에 저장하고 산문을 드나드는 사람들 소원을 들어주고 있다. 간염화재 어우주연상을 받은 전도연씨도 들러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길 바란다'는 소망을 남겨 두었다.

능가산 자락에 포근하게 둘러싸여 있는 석포리는 30여 호 남짓 되는 사람들이 어울려 산다. 67구가 식당을 하고, 나머지는 노령가구나 자녀들 용돈에 의지해서 사는 전업농민들이다. 정부는 농민의 소득창출을 위하여 전통테마마을로 지정을 하는데, 입암마을도 테마마을로 지정되어 지원금을 받았다. 그러나 소득으로 창출되기까지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만, 마을에 재원이 없어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 박동선 개발추진위원장은 안타까운

## 정부서 테마마을로 지정...재원 없어 투자 유치 못해 마을 정비되었지만 민박집 운영해 공과금 내는 정도 몇 해 전 절집서 땅 내줘 숙원 사업인 노인정 건립

현실을 이야기하며 말문을 열었다.

"지금 우리 마을은 내소사를 찾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민박을 하여 공과금을 내는 정도입니다. 전통 테마마을로 지정되어 마을은 깨끗하게 정비되었지만, 7가지의 거리가 없어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개발위원장은 뭔가 확실한 대안이 없어, 테마마을로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갖고 있다.

"먹을거리, 놀거리, 체험거리, 볼거리, 할거리, 잘거리 등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하기에는 너무 노령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나 관광객들에게 확실하게 나눠 줄 수 있는 것은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과 친절입니다. 우리 마을은 석포호가 있어서 물이 풍부하여 하천에 다슬기가 많이 산다. 깨끗한 자연은 얼마든지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박동선씨는 어려서 불심은 있었지만 깊은 인연을 맺고 살지 않았단다. 일 년에 한두 번 절집에 들르지만 불심으로 입암마을에 들어와 살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산을 좋아하고 스님들을 좋아해서 도시의 편리함을 버려두고 왔다.

5대째 입암마을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는 강성태씨는 젊은 날 돈을 좇아 도시에 나가 살다가 30년 만에 몸이 고단해 고향으로 돌아왔다. "공기 좋은 곳에서 육식 없이 편안하게 사니가 병이 달아나 버렸어요. 민박집을 하면서 돌담 쌓는 일이다. 자연친

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취미생활이 되었습다. 늘 이웃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지요." 매일 아침 그의 하루는 담배꽂조를 쬐는 일로 부터 시작된다. 처음에는 잔소리를 하면서 주웠는데, 지금은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일거리를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 고맙다.

입암마을은 옛날보다는 인구가 많이 줄었다. 하지만 도시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주민들도 더러 있고, 간간히 서울 사람들이 공기 좋은 곳에 터를 잡아 옮겨 오고 있다.

마을 밖으로 돌아가는 하천은 물을 정화하기

위해 심은 나무들로 백백했다. 덕분에 내소사 아랫마을은 1급수로 농사를 짓는다. 맑은 물과 공기를 마시고 살아서 그런지 모두 젊어 보여 나이를 구분할 수가 없다.

몇 해 전 마을의 오랜 바람이었던 사람들의 놀이터가 생겼다. 절집에서 땅을 내주고 정부에서 건물을 지어주어 노인정이 생겼다. 마을에 어울리는 황토집이 근사해 보였다. 가끔 스님들도 식사 후 마을 산책을 내려온다고 했다. 속세로 나오는 것도 정진의 시간인 듯하다.

마을 사람들은 크게 불평 없이 자연이 주는 혜택 안에서 주어진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살고 있다. 그들은 촛불처럼 타 들어가는 느낌을 지니고 사는 것이 편안하다고 했다. 나를 위해 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불을 밝히며 진리를 배워가는 사람들이다. 혼자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기에는 부족하지만, 마을사람들이 우리라는 큰 마음을 품을 때 마을 어귀에 희망이 서성거리지 않을까 싶다.

내소사=김성수(수필가·본지 객원기자)



석포리 중심도로의 상점.

# 세상 모든 일은 행복을 위한 공부거리입니다

밝고 편안한 인생을 사는 마음공부의 핵심

## 행복한 공부



김정섭 지음



180쪽 | 글 8,000원 | 295원

입에서 입으로 손에서 손으로 전해진 스테디셀러 《행복한 마음》 저자의 두번째 이야기!

복잡한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소중한 마음공부법을 알려주는 수행담문서! 마음공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어려운 이론이 아니다. 인생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공식이 바로 공부이고 수행이다. 수행의 글이글이에서 만나는 24가지 의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알려준다. 마음공부의 초심자와 이미 그 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실천 가능한 공부법을 알기 쉽게 제시하는 책!



대한출판문화협회  
이달의 청소년도서 선정  
중앙독서감상문  
추천도서

세월이 흐를수록 감동의 깊이가  
큰 울림으로 되살아납니다!

어지러운 마음을 다스리고 삶의 지혜를 얻게 해주는 172가지 뜻깊고 재미있는 이야기! 글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삶의 여정에서 막히고 뒤흔던 갖가지 문제들의 해답을 스스로 얻고 행복이 멀리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현대인의 고단한 영혼 위에 드리운 커다란 나무 그늘 같은 책!

## 행복한 마음



김정섭 지음  
530쪽 | 글 5,900원 | 955원

대한출판문화협회 Tel 031-965-3104 www.gmmj.com